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모델 만든다

전주시-전주문화재단-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도시 조성·전통문화 기반 미래문화 콘텐츠 육성 협약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통문화 기반 미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시와 (재)전주문화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16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규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미래형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도시 전주의 중장기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통문화 기반 융합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미래문화 분야 공동 이슈 발굴 및 연구 수행 △포럼·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와 학술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16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규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보유한 예술 창작·연구 역량과 전주문화재단

의 지역문화 기획·운영 경험, 전주시의 행정적 지원이 결합되면 전통문화와 현대적 해석과 미래문화 콘텐츠 구현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넘어 미래문화 창작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생산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문화 콘텐츠 발굴과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전통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가 전통과 미래를 잇는 문화 실험의 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방문판매 피해 주의하세요”

전주시, 피해 사전 방지 위해 예방 홍보활동 추진

최근 생필품 열거 판매나 무료 시은품 제공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는 방문판매(홍보관, 찜뽕방 등)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제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하면 영입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및 샘플 제공 등 미끼상품 유리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수령 및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개인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의 예방법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전주시(완산구청=063-220-5353, 덕진구청=063-270-6352,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373)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원예농협은 지난 16일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장과 임종경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이승진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전주산 배, 베트남 전역에 공급된다

‘전주한옥애뜰’ 공식 출범 이후 첫 수출 선적식 가져

지난해 전주산(産) 농산물의 동남아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전주에서 생산된 배가 베트남 전역에 공급된다.

전주시와 전주원예농협은 지난 16일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장과 임종경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이승진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올해 전주산 배의 첫 수출지는 베트남으로, 전주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전주한옥애뜰’이 공식 출범한 후 이뤄진 첫 번째 수출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선적식에서 참석자들은 전주배 1,080상자(16.2톤)의 베트남행 선적을

적려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배를 맛과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주산 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전주한옥애뜰’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판촉 행사를 확대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한옥애뜰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브랜드 통합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에서 만든 농산물 브랜드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강연자)는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가정어린이집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25년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보고 △보육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보육 현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보육 현장을 지키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육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에는 더욱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신뢰받는 보육환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보육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글로벌 촬영 인재 양성 ‘앞장’

전주영화종합촬영소·전주대·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 협업 프로그램 성료

전주시가 지역 대학, 세계적인 영화 촬영소와 손을 맞잡고 글로벌 촬영 인재 양성에 나섰다.

시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전주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주)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가 협업해 운영한 전국 최초의 ‘ARRI 카메라 공인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수탁기관인 (주)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와 전주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지역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의 촬영 인프라, 글로벌 장비사가 협력해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은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글로벌 촬영 현장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ARRI 카메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전주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주)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가 협업해 운영한 전국 최초의 ‘ARRI 카메라 공인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의 조작법과 촬영 기술을 배웠다.

특히 이번 과정은 글로벌 표준인 ‘ARRI 공인 인증(ARRI Certification)’을 연계해 운영됐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영화·영상 제작 현장 진출 시 전문성을 공식 인정받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태정 ARRI 코리아 대표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전국 최초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글로벌 촬영 현장으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